

## 오피니언

## 다산포럼

임현진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책 중에 '우동불'과 '돌개'가 있다. 항일투쟁 중 늑대를 쫓기 위해 밤에 피웠다는 '우동불'은 이별식 장군, 그리고 일본군으로부터 도파 중 머리에 베고 잣다는 '돌개'는 장준하 선생의 자서전이다.

지난달 우리 '시대의 스승'이라 불린 김준엽 선생이 돌아가셨다. 광복군 출신의 그의 태계를 보면서 장준하 선생을 떠오르게 된다. 두 분 모두 일본군에 징용되어 그로부터 탈출하여 항일독립군으로 참여하면서 광복 조국의 미래를 고민했던 공통점을 지닌다. 먼저 항일중국군에 가담한 김준엽 선생이 장준하 선생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특히 두 살 터인 두 분 중 김준엽 선생의 결혼을 맞아 장준하 선생이 주례를 담당하는 사설은 매우 흥미롭다. 그만치 두 분은 각별한 인연과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박정희 독재에 맞섰다는 점에서 장준하 선생과 김준엽 선생의 고통은 지속되었지만, 한 분은 정치 참여로 주저하지 않으면서 다른 한 분은 대학 강단을 지키면서 모두 현실 개조를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는 실천적 성격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요즈음은 참다운 지식인이 메랄라 가고 있는 현

## 지식인의 良心과 兩心

사이에서 분열과 긴장을 더해갔다.

국가주도적인 위로부터 급속한 선진국 따라잡기식의 자본주의 산업화를 추진한 박정희 정권은 실제로 많은 지식인을 동원했다. 당시 정권에 참여한 '기능적 지식인'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행정관료를 비롯한 전문기술분야의 기술관료(technocrat)이고, 다른 하나는 정권의 정당화 역할을 수행하는 이데올로기(ideologue)다.

이와 달리 정권에 참여하지 않은 지식인은 '비판적 지식인'으로 자리 잡아갔다. 비판적 지식인 집단은 한일회담 반대투쟁, 월남전 파병 반대투쟁, 부정선거 무효

화투쟁, 3선 개헌 반대투쟁 등을 거치며 서서히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결집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악압성에 저항하고 비판하는 일이야말로 지식인의 본분이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대세였다.

현대 한국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광복 할만한 산업화와 민주화이다. 경제 규모에서 세계 10위권에 위치하고, 정치 절차에서 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삶의 양'이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삶의 질'이 중시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먹고사는 문제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빈자들이 있는가 하면, 명품이나 웨딩의 가치를 주

구하는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사람들이 공존한다.

이러한 가운데 지식인이 사라지고 있다. 우려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지식인 전체가 멸종되어 가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으로서 지식인은 아직 존재하면서도 집단으로서 지식인은 이제 부재하다는 얘기다.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가 미흡이나마 정도의 건강성을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배경에는 전체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지식인의 역할이 매우 커다. 이들은 개인의 잘못을 짚지기에 앞서 구조의 패

형성을 지적하고 인간 해방과 사회발전의

열쇠를 제3의 개혁 내지 변혁에서 찾으려 하여 왔다.

그러나 지식인은 근래에 들어와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기성질서에 대한 도전과 비판보다 방관 내지 협조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지식인의 사회 참여는 물론이고 정치 참여 조차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발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지식인에게서 과거와 같은 체제혁파의 주도 세력으로서 집합적 주체 형성을 기대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해 보이지 않다. 지식인의 퍼티화가 진행 중에 있다. 1950·1960년대의 지사형 지식인이나 1970·1980년대의 투사형 지식인이 사라지고 있는 주요한 배경이다.

오늘날 지식인 중 대다수는 체제타협적인 참여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려 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체제비판적인 도전을 무조건 바람직하다고 수긍하지도 않는 다소 양가적(兩價的)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가적 이중성이 장년 세대 보다 청년세대로 내려갈수록 보다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성의 중화(中化)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참다운 지식인이라 할 김준엽 선생의 소전을 보면서 나부터 양심(兩心)에서 벗어나 양심(良心)을 가져야 하겠다는 자성을 해본다.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NGO 칼럼



김혜옥

## 끝까지 지켜줘야 할 성폭력 피해학생들

하지만 지금까지 이 학교와 시설은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지자체의 적법한 행정행위조차 거부해왔다. 그런데 이제와 성폭력 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보겠다며 시설의 명칭을 바꾸고 더 나아가 지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운영하겠다고 한다.

어떻게 과거의 일들이 이를 바꿔 시 간이 지났다고 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 일은 그렇게 쉽게 결정하고 매듭지을 수 없다. 이 사건을 작가는 소설로, 감독은 영화로 다룬다.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가 바로 그것이다.

동명의 영화는 올 가을 개봉을 앞두고 있다. 결코 감출 수 없는 일들이기에 모두가 망각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이다. 또한 소

설레이너로 알려진 배우, 가수, 작가가 손을 잡고 피해 학생들을 위로하고 돋기 위한 행사를 준비 중이다.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을 쉽게 덮을 수 없도록 감시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당국은 이 학교와 시설이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감독하리라 믿는다.

사건이 일어나고 학생들이 학교를 떠난 지 벌써 5년의 시간이 지났다. 중·고등학생 이런 아이들이 이제는 졸업했다. 대부분 취업하거나 대학에 갔고, 일부는 직장을 구하고 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되어 전체적인 일들을 이끌어 나갔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홀로 삶을 세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뜻이 담긴 '홀더'의

이름으로 그룹홈을 만들어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의 거처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학교에서 나온 아이들이 함께 모여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시민들이 함께하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내어 놓았다.

미술을 잘하는 사람은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쳐 주었고, 춤과 연극으로 상담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심사일반 뜻을 모았다. 5년, 많이 서툴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이 아이들은 잘 견뎌주고 잘 자랐다.

끝까지 우리가 이 아이들을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 이 아이들이 '홀더'라는 이름처럼 자신들의 삶을 세워나가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로 자랄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할 것이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잘 견뎌온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받은 사랑만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영글어 가는 모습을 함께 보고 싶다.

<홀더지역아동센터 원장>

## 기고



## 모자이크, 광주의 새로운 문화 상품

장학금을 받는다.

최근 국내는 '반값 등록금'으로 시끄럽다. 현재 4000여 명의 대학생이 등록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한다.

프리울리 모자이크 학교가 전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하다. 모자이크가 건축물의 장식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학교의 강점은 단지 가르치는데 그치지 않고, 공사 수주를 통해 학생들이 실제로 배우고 익히면서 자신의 재능을 판매하고 있다.

이곳의 전교생은 모두 100여 명이고, 3년 간 수업을 받는다. 이 기간 학생들은 기술을 익히면서 공사 수주를 통한 다양한 작업에 투입된다. 굉장히 효율적이다.

예술학교의 새로운 물 토털이다.

더구나 프리울리 주립 모자이크 학교는 광주시의 분교 유치 의사에 긍정적이었다. 일단 도 오래전부터 분교유치 희망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프리울리측은 일본이 아닌 광

주에 주겠다고 한다.

프리울리 학교가 광주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은 광주의 문화적인 가능성 때문이다.

또한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로서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할 광주가 모자이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도 충분하다.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라면 반드시 우리 것이 아니라도 보편적인 미감을 살려 다시 재분배하는 '문화적 교도보' 역할을 해야 한다.

아시아 문화를 이끌 수 있는 전략적 선택으로 모자이크가 적합하다. 광주에 모자이크 분교가 생길다면, 모자이크 분야가 생소한 아시아 각국에 이를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프리울리 모자이크 학교는 90년이 넘는 역사성과 전문성으로 모자이크 장인만을 양성해온 아시아인 정인정신의 산실이다.

반면,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초기 투자비가 30억 원이 훌쩍 넘는 모자이크 분교 유치는 아직 시기상조다. 왜냐면 개교 후 어떻

게 운영할 것인가 문제가 있다.

또 모자이크의 저변 확대도 필요하다. 프리울리 학교는 지난해부터 2차례 광주지역 작가 10여 명과 '모자이크 워크숍'을 열었다. 하지만 워크숍이 끝난 뒤, 프리울리 학교의 모자이크 기술을 습득한 지역 작가들이 갈 곳이 없다.

아직은 광주에서 모자이크가 생소하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시작된 '제2회 광주 모자이크 워크숍'을 통해 제작된 모자이크 작품은 빛고을시민문화센터 주변 가로등 7곳에 부착하게 된다.

모자이크 산업이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작가들 스스로 모자이크의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노력이 먼저지만, 이들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모자이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의 도움도 필요하다.

관청 건물이나 아파트 담장에 모자이크 작품이 설치된다면, 자연스럽게 모자이크 작가들도 늘어날 것이다.

프리울리 모자이크 학교의 다양한 표현재료와 기법을 우리 지역의 풍부한 창의성과 결합시킨다면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인스나인 환경디자인 연구소장>

## 흉악범 공소시효 폐지해 법적 심판 받게 해야

일본에서는 지난해 살인 등 12가지 중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흉악범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집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일본이 살인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한 것은 130년 만의 일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살인과 강도 등 최

사건 발생 몇십 년이 지난 뒤라도 사건을 증명할 수 있다.

또 흉악범죄에 대해선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도 강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살인사건 같은 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법을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안된 걸로 안다.

일본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공소시효가 폐지되기를 바란다. 흉악범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반드시 찾아내 법률적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이진경·광주시 북구 운정동

## 시설

## 광주 빙곤층 1만가구 의료 사각지대라니

광주에 거주하는 극빈층의 삶이 최악이라고 한다. 아직도 비닐하우스나 움막 등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적지 않고 1만여 가구 이상이 건강보험료를 제납해 복지화다고 한다. 광주지역 전체 차상위 계층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광주의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섰지만 비닐하우스와 임시막사, 텁oola방, 움막 등에 살고 있는 주민이 1129가구에 3731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당수의 시민들이 열악한 주거공간과 집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차상위 계층 1만여 가구도 건강보험료 청납으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에 맞아 정부에서 100%를 넘어지면 비닐하우스와 임시막사, 텁oola방, 움막 등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1156.3원과 비교하면 2800억 원의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

선진국에서 보듯 국민의 보건과 복지는 정부에서 맡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럼에도 재정이 바닥인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비를 떠넘겨 복지정책이 걸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당장 사회복지 부문을 떠안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세금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여져야 부자감세나 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

## 환율 하락 부작용 최소화에도 만전 기해야

원·달러 환율이 2년11개월 만에 1050원대로 떨어졌다. 이 같은 환율 하락으로 유로존 금리인상과 글로벌 달러 약세 영향 등이 지적되고 있지만 외환 담당의 시장 개입 자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환율 하락 주체는 최근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가 물가 안정이라는 점에서 궁금적이다. 환율이 10% 하락하면 소비자 물가는 0.5%포인트 떨어진다. 4%대의 높은 물가상승률에 시달려는 서민들에겐 반기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환율 하락은 단기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기조가 성장에서 물가안정으로 전환하고, 유럽 기준금리 인상과 무역수지 흑자 등 안팎의 여건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율이 1050원선까지 떨어지고 중장기적으로 1000원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환율 하락은 물가엔 긍정적이다. 다만 시장에 심리적 공포를 부르는 급격한 환율 하락을 막을 속도조절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無等鼓

국민 정서상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사실이다.

또 사건 관련자 등 타인의 혐의 내용을 알려주기도 하는 플리바케닝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거부감이 큰 편이다. 플리바케닝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한 정보제공 대가로 자신의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깨린다. 즉, 남을 고자질해 죄값을 덜어주는 인식 때문에 플리바케닝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인식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플리바케닝을 입법예고하고 이를 도입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보완책 마련 없이 플리바케닝을 받았을 때 수사권의 주의와 인권 침해소지가 있다는 논란도 만만치 않다. 업무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으나 진실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다.

'범죄자와의 협상은 독이 든 초콜릿이다' 플리바케닝 도입 논의과정에서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 /박지경 사회부부장 unipark@kwangju.co.kr

## 光州日報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자자·자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내 〈대표 FAX 22